

□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2016년 11월중 전년동월대비 3.2% 증가, 조선업 감소폭 축소 및 자동차 플러스 성장 등으로 생산 증가율이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 기록

※ 동남권 제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원지수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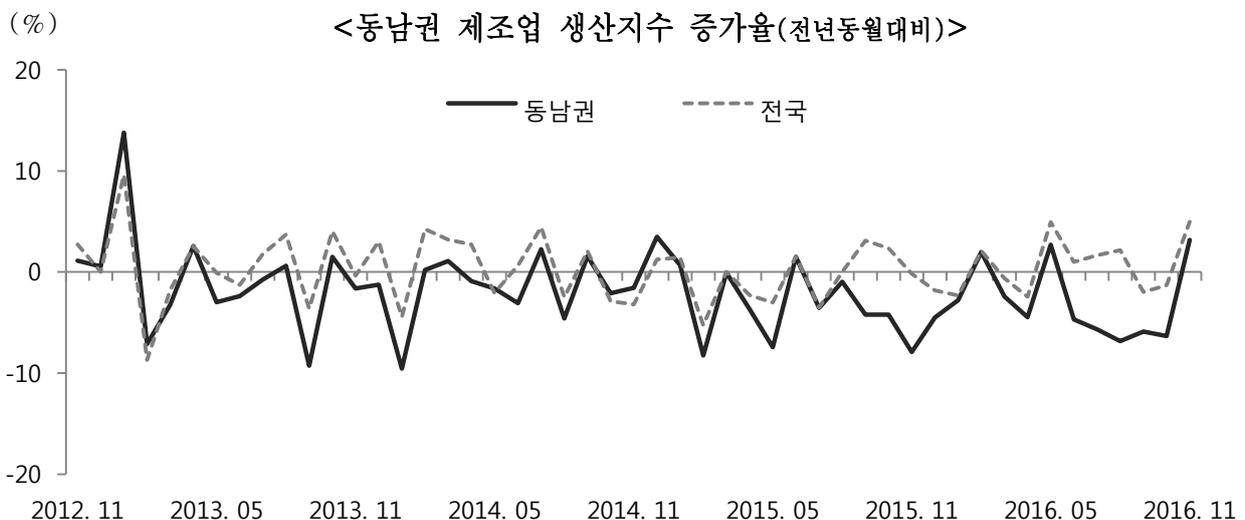
△6.8(2016.8월) → △5.9(9월) → △6.3(10월) → 3.2(11월)

- 업종별로는 화학(11.1%), 석유정제(8.1%) 및 자동차(5.8%) 등은 증가했으나 금속(-9.5%), 기계(-1.2%)는 감소

* 조선은 19개월만에(16.5월 제외) 가장 낮은 감소폭을 시현했으나 생산수준은 최대치(125.7, 13.1월)대비 절반 수준(55%)에 불과

** 자동차는 금년 하반기중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금월에는 수출 증가 및 신차효과에 따른 내수확대 등으로 증가세 전환

- 지역별로는 울산(7.7%)은 증가. 부산(-2.7%), 경남(-0.3%)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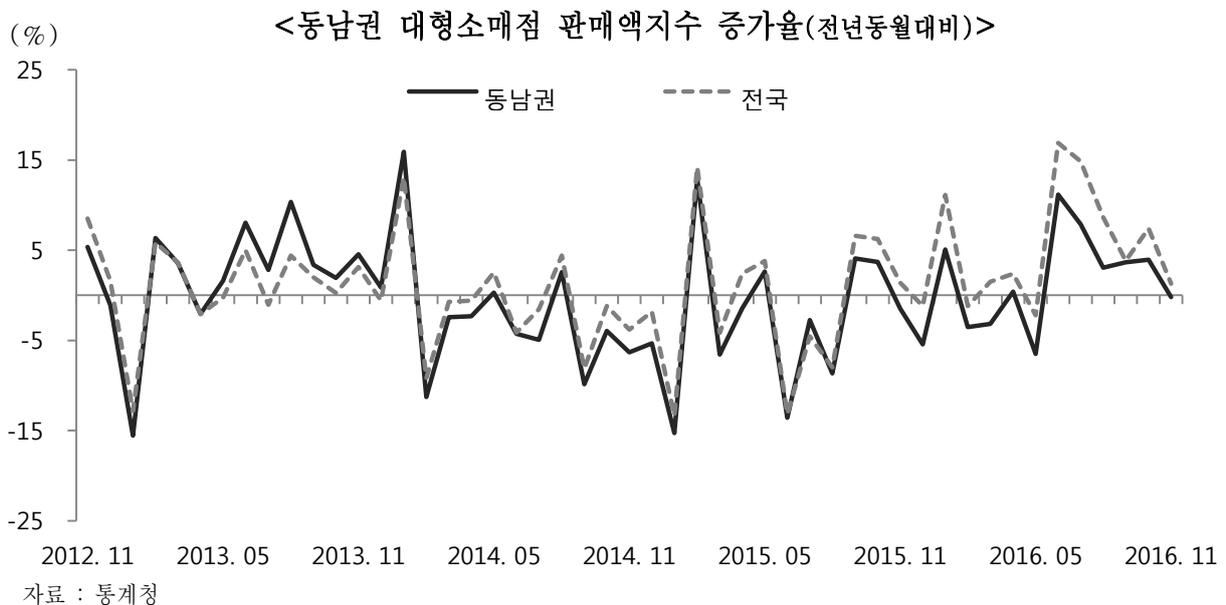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

□ 동남권 대형소매점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.2% 감소

※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불변지수, %)
 3.1(2016.8 월) → 3.7(9 월) → 4.0(10 월) → △0.2(11 월)

- 백화점(-8.3%)은 감소, 대형마트(6.8%)는 증가
- 상품별로는 화장품, 음식료품 등은 증가했으나 오락·취미·경기용품, 가전제품, 의복 등이 감소
- 지역별로는 경남(6.1%)은 증가. 부산(-0.2%), 울산(-9.5%)이 감소



□ 동남권 산업생산의 플러스 전환은 조선,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기저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생산수준은 최대치의 88%에 불과하여 경기회복의 신호로 판단할 수 없음

담당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
 김민준 책임연구원
 Tel. 051) 620-3186